

# 〈셋파 쿤창쿤팬〉을 통해 태국사회 읽기\*

김 영 애\*\*

## I. 서론

태국은 13세기경에 타이족이 현재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건설한 나라이다. 다시 말해 몬족, 크메르족, 라오족 등의 선주민들에 의해 인도의 힌두문화가 이미 전파되어 있었던 지역에 타이족이 남하하여 왕국을 세웠고, 람캄행대왕은 13세기에 스리랑카로부터 상좌부불교를 도입하여<sup>1)</sup> 이 불교를 통해, 또 문자창제(1283)<sup>2)</sup>를 통해 인도차이나반도의 짜오프라야 강유역을 정치적·문화적으로 석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태국인들의 작품 속에는 태국인의 중층의식<sup>3)</sup>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

\* 이 논문은 2000년도(2000.9.-2001.8)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된 것입니다

\*\* 한국의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교수

- 1) 원시불교, 남방불교 또는 소승불교를 의미한다. 태국에도 불교의 종파가 여럿 있으나 주종은 스리랑카에서 13세기경에 도입된 '랑카윙 종파'이다.
- 2) 태국의 문자는 쑤코타이 왕국의 람캄행 왕에 의해 고대 몬문자와 고대 크메르문자를 이용하여 태국어에 맞게 창제되었다. 당시 선주민이었던 몬족, 라오족, 크메르족의 언어와 문제를 감안하여 성조어인 태국어에 맞게 창제된 것이다.
- 3) 맨 밑에는 자연신 숭배의식이, 그 위에 힌두문화(브라만문화 포함)가, 그 위로 타이족 고유 문화와 불교문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셰파<sup>4)</sup> 쿤창쿤팬〉은 실제 민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수백년 간 민간의 사랑을 받으며 태국인에 의해 구연·전송되어 온 서사문학으로, 이 속에는 태국 사회의 모든 것이 녹아있다.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는 태국사회의 모습과 태국인의 의식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본 연구는 아유타야 왕국 때부터 지금까지 약 7백여 년 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구연되어 온 〈셰파 쿤창쿤팬〉을 읽고, 이 속에 나타난 태국인의 의식과 당시의 사회모습을 평민층을 중심으로 재구성해보려고 한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작품의 배경과 내용을 시대적 배경과 함께 살피고, 3장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당시의 관습들을 살필 것이다. 작중 인물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통과 의례와 태국인의 믿음을, 그리고 4장에서는 태국인의 관료 선호사상과 그들의 생활모습을 작품에 나타난 양반층의 생활모습과 상벌관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5장 결론에서는 당시의 태국사회모습은 정리해보고 현재와의 영향관계를 간략하게나마 살핌으로서 본 연구를 맺으려 한다.

---

4) “셰파”라는 단어의 연원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 있지 않고 아울러 그 뜻도 모른다. 사전적 의미는 “악기 반주에 맞추어 긴 이야기를 구연하는 것”이다. 크릿 뿌라뫼은 일간지 “짜암랏”에 “셰파”는 “옛날 재무성 관할의 감옥”이라며 “셰파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 특히 관료들 사이에서 시작되어 즐겨 유행하던 얘기형태였다. 특히 수감자들은 쿤창쿤팬을 즐겨 얘기했다. 주인공인 쿤팬을 비롯하여 쿤창, 프라타이남 등등 주인공이나 작중 인물들 대부분이 왕의 노여움을 사거나 잘못을 저질러 옥에 갇혔었기 때문이다.”라고 쓰고 있다. Saowalak Anantasad. 1979. *Wannakamek khongthai*(태국의 걸작). Bangkok: Ramkham-haeng University press. pp. 1-4. 참조.

“셰파”라는 단어의 어원을 “신에게 노래하고 제물을 바치며 경배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팔리·싼스크리트어의 “셰와”에서 찾는 학자도 있다. 태국어에서 자음 “W”는 흔히 “PH”로 전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복 등의 악기에 맞추어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타미르어의 “셰라와이” 또는 “하리셰라와이”에서 찾는 학자도 있고, 또 “음악에 맞추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태국의 북부와 동북부의 방언 “셰팡안”에서 찾는 학자도 있다.

## II. 작품의 배경과 내용

### 1. 작품의 문학적 위치와 배경

과거 태국인들은 집안이나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또는 명절에 일가친척이나 동리 사람들이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즐겼는데, 그중 하이라이트는 의식에 이어 한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다시 말해 밤에 시작하여 새벽녘까지 이어지는 동작(춤 포함)을 곁들인 소리 또는 이야기<sup>5)</sup>였다. 이 소리는 하나의 이야기를 “끄랍<sup>6)</sup>”이라고 불리는 간단한 악기 반주에 맞추어 혼자 또는 여러 사람이 행하는데, 17-18 세기까지는 박자나 맞추는 정도의 단독 구연이었다. 그후 라마 2세 때에는 빼팻<sup>7)</sup> 악단이 반주하고 있다. 이러한 “세파” 공연을 “세파 송크르영”이라고 부른다(Damrongrachanuphap 1930: 13).

〈세파 쿤창쿤판〉은 아유타야 왕국의 라마티버디 2세(1491-1429)때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한다.(Damrongrachanuphap 1965: 10) 그 당시에 아유타야 왕

5)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는 방식은 약 700여 년 전부터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행해져 왔다. 마을이나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 집안 사람이든 아니면 동네에서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이 나서서 길가의 정자나 절 마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동네사람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박자에 맞추어 들려주었다. 놀이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 중요한 놀이의 하나였다. 태국어가 성조어인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음악적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성인식을 하는 날(곧축) 밤에 의식이 다 끝나면 이야기꾼을 초청하여 손님을 접대하였다. 이러한 태국인의 오락은 하나의 전통이자 관습으로 발전하여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이야기 대신에 서민들이 즐기는 리케나 영화라는 것이다. 아유타야 왕국의 시조인 우팅왕때 내전법에 “혹툼이면 악기를 연주해 분위기를 돋우고 췌툼이면 얘기를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태국인들은 왕이나 서민이나 할 것 없이 이미 14세기 중엽이전부터 모두 이야기를 즐겼던 것 같다. *Thai 4, Sukhothaimathiraj University 1988: 132* 참조.

6) 우리나라의 국악기 “박”과 유사하다.

7) 피리와 같은 취주악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악단으로 라닛(실로폰과 유사한 악기), 북, 징이나 췌가리 등의 타악기가 곁들여 있다.

국, 치앙마이 왕국(당시는 독립국이었음), 그리고 란창 왕국(현 북부 라오스에 위치)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라마티버디 2세 이후 이 작품의 주인공, 쿤창과 쿤팬, 그리고 완텡간의 삼각 사랑 이야기는 구전되어오다가<sup>8)</sup> 나레쑤언 왕대에 처음으로 문자화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sup>9)</sup> 물론 문헌화한 이야기는 소수의 식자층에서만 읽혀지고 전승되다가 아유타야 왕국의 멸망과 함께 소멸되었을 것이다. 짝끄리 왕조의 초기에 왕명에 의해 수집되어 기록되기 시작하여 일부는 다시 쓰여졌다. 그후 라마 6세에 이르러 왕명을 받은 당대의 유명시인들에 의해 완성되었다. 현재 저자가 나타나 있는 21 대목<sup>10)</sup>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자가 나타나 있지 않다.

- 8) 태국의 학자들은 만일 이 이야기가 기록문으로 전승되었다면 현재까지 전승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1767년을 전후하여 아유타야 왕국은 십 수년간 연이어서 미얀마의 침공을 받아 마침내 망했는데, 이때 수도인 아유타야가 잿더미가 되고 왕과 왕족을 비롯하여 장인들이 미얀마로 잡혀갔으며 그때에 태국의 모든 서적이 전소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 9) 나레쑤언왕대에 중국왕이 태국으로 구슬을 보냈는데, 나레쑤언왕은 그 구슬을 왓빠깨우 사원 또는 왓짜오파야타이 사원에 있는 차야몽콘 켄디(탑)의 맨 위에 안치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쎄파 쿤창쿤팬>중 쿤팬의 아들 플라이깨우의 출산대목에 나타나 있다. 마침 중국에서 구슬(깨우)을 보낸 역사적 사실이 있어 아들의 이름을 플라이깨우라고 지었다는 것이다. <쎄파 쿤창쿤팬>의 현존본의 내용 중 위의 사실이 가장 오래된 역사적 사실이며, 이로 미루어 구전되던 민담이 비로소 나레쑤언왕대에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평하고 있다.
- 10) 저자가 나타나 있는 21 대목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이 저자)
- 제4대목 “플라이깨우가 핼과 사랑을 맺는 대목”(라마 2세)
  - 제5대목 “쿤창이 핼에게 구혼하는 대목”(라마 3세)
  - 제13대목 “완텡이 라우텡을 시기하는 대목”(라마 2세로 추정)
  - 제16대목 “꾸만텡을 만드는 대목”(크루헝)
  - 제17대목 “쿤팬이 쿤창의 집에 들어가 깨우끼리야를 취하는 대목”(라마 2세)
  - 제18대목 “쿤팬이 완텡을 데리고 도주하는 대목”(라마 2세)
  - 제20대목 “쿤창이 쿤팬이 반란했다고 모함하는 대목”(라마 3세)
  - 제23대목 “쿤팬이 투옥되는 대목”(쌩디폰라 쎄군)
  - 제24대목 “플라이암의 출산 대목”(쑤턴푸)

“썬파”는 태국식 운문의 한 종류인 끌런<sup>11)</sup>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 면에서 보면 전설이나 민담을 주제로 하고 있는 구비문학이다. 형식면으로 보면 끌런쑤팸이면서도 형태상으로는 플랭야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서사시이다. 플랭야우처럼 앞 절의 둘째 음절에서 “크라우난(그때에)”, 또는 “짜끌라우툼(…에 대해 말하자면)”으로 시작되며, 대단원의 끝맺음을 나타내는 “어이”라는 단어로 끝난다. 한 마디로 “썬파”는 전설이나 민담 등의 이야기를 악기에 맞추어 구연하는 문학의 한 형식이다.

“쿤창쿤팬이야기”는 실제 아유타야시대에 쑤판부리와 깐짜나부리에서 있

제25대목 “란창왕이 딸 썬이팅을 프라판완싸왕에게 바치는 대목”(라마 2세 전의 古本\*)

제28대목 “플라이잉암이 씨말라를 얻는 대목”(古本, 크루쟁, 라마 5세 때 여러 시인에 의해 공동으로 지어진 공동본의 3본이 있다)

제29대목 “쿤팬이 프라타이남을 구해준다”(크루쟁)

제30대목 “쿤팬과 플라이잉암이 치앙마이왕을 사로 잡는 대목”(크루쟁)

제31대목 “쿤팬과 플라이잉암이 승전하여 귀군하는 대목”(크루쟁)

제32대목 “썬이팅과 썬이화를 바치는 대목”(古本에 크루쟁이 수정)

제38-42대목 “플라이잉암이 주술에 걸리는 대목에서 썬이화와 씨말라가 불 속을 걸어 결백을 증명하는 대목까지”(古本)

제43대목 “테라콧이 악어로 변해 도망가는 대목”(라마 2세때 삽입본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크루쟁이 확대하여 제43대목으로 만들)

\* 古本은 라마 2세 이전에 완성되어 전해오던 “썬누언가요”를 의미한다.

11) 태국어는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성조어이며 모음도 장단이 있으므로 운문이 매우 발달하여 왔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대체로 클롱, 갑, 찬, 끌런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끌런은 자장가 등의 민요에서 발전한 형태로, 끌런의 1연(뫼)은 보통 2행(바-스)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행이 두 개의 “왁(節)”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절을 “왁싸답”, 뒤절을 “왁랍”, 둘째 행의 앞절이 “왁렁”, 그리고 뒤절을 “왁쑹”이라 부른다. 한 개의 “왁”은 종류에 따라 6-8개의 음절로 이루어지나 음절이 8개인 “끌런 빠-스(8)”이 가장 보편적이다. 6음절은 “끌런훅(6)”, 7음절은 “끌런 쟈(7)”이라고 한다.

물론 음성을, 음수를, 음위율이 지켜진다. 율격에 따라 “끌런 싸까와”, “끌런덕씨어”, “끌런 붓라컨”, “끌런썬파”, “끌런플랭야우”, “끌런나라스”, “끌런티타-스” 등으로 나뉜다. 끌런의 종류에는 그 용도와 내용에 따라 “끌런 쑤파-비”, “끌런 랍남”, “끌런팔라-스”, 또는 “끌런캅렁”과 “끌런플렁” 등으로 나뉘는데 학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있던 이야기라고 한다. 구비·전승되어 오며 명절이나 잔치 때같이 사람이 많  
이 모일 때면 이야기로 꾸며져 소리꾼(이야기꾼)<sup>12)</sup>에 의해 구연되었다. 이 과정  
에서 청중의 흥미를 끄는 부분은 풍류인 또는 소리꾼, 또는 이야기꾼에 의해  
자세하고 길게 꾸며졌다. 그 길이는 잔치나 향연의 경우에 따라, 또 소리꾼의  
취미에 따라 주어진 시간에 맞추어졌다. 대체로 밤에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녘  
에는 끝나는 길이였으며, 아유타야 왕국의 소리꾼들은 자신의, 자신이 만든  
소리(내용)를 절대로 남에게 전수시키지 않았다. 후에 끝난 형식의 운문이 유행  
되면서 자연 경관에 대한 감상, 작중인물의 묘사, 작중 인물의 하소연, 그리  
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 등등 일부 중요대목에 끝론을 삽입하여 그냥 산문  
체의 이야기에서 시적 분위기로 바뀌어 청자의 흥을 돋구었으며, 그 후에는  
이야기의 전체가 끝론으로 옮겨져 전승·구연되고 있다.

당초 “쿤창쿤팬이야기”는 그 수(편)가 매우 적었는데, 14-5세기에는 직업적  
인 소리꾼이 흔하던 시절이 아니었고, 소리나 문학은 양반이나 즐기는 풍류의  
하나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으며<sup>13)</sup> 전승과정에서 재미있는 대목만 중점적으  
로 소리꾼에 의해 재편집되며 전승되었으므로 부분 부분이 없기도 하였던 것  
이다. 다행히 이 이야기는 구연·전승되었던 것이었으므로 짝끄리 왕조가 들  
어선 후 2대(라마 2세)-3대(라마 3세) 왕 때부터 나라가 안정되고 문학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면서 국민들이 애청하는 “쿤창쿤팬이야기”를 기억을 더듬어 기록  
하였고, 그중 가장 뛰어난 본을 중심으로 재편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라마 2세(1809-1824)와 라마 3세(1824-1851) 시대에 세파가 유행하면서 과거  
부터 전승되어 오는 모든 소리들이, 대목 대목의 소리들이 왕명에 의해 수집

12) 태국어가 5개의 성조를 가진 언어이며 모음도 장모음과 단모음의 구별이 확실하므로 이  
미 언어 그 자체만으로도 음악적이고, 이 음악성을 최대한으로 살린 갖가지 운문이 발달하  
였다.

13) 태국은 서양으로부터 유학생들에 의해 소설이라는 형식이 들어오기 전까지 운문이 문학  
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 동안 산문은 역사적 사실의 기록 등에만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문  
학은 양반계층의 여가선용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되고 기록되었으나 원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때 이루어진 본을 전승되어 오던 “〈썬파 쿤창쿤팬〉기존본<sup>14)</sup> (썬누언듬)”에 대비하여 “〈썬파 쿤창쿤팬〉왕명본(썬누언루엥)”이라고 한다. 후에 담롱라차누팜 대군과 까위푹썬쁘리차 대군이 라마 6세(1910-1925)의 명을 받아 위의 두 본을 기준으로 삼아 서로 대비하여 아름다운 본을 택하여 정선하고, 그 어휘와 내용이 저속한<sup>15)</sup> 부분은 아름답게, 적어도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하였으며, 또 부족한 부분은 당대 유명 시인에 의해 보충되어 1917년에 원본을 완성하고 “〈썬파 쿤창쿤팬〉국립도서관본”(이하 도서관본)이라 칭했다. 이 도서관본은 매우 어휘와 문장이 뛰어난 썬파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고 있으나 너무 길어 하루밤 사이에 완창하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본을 택하였다.

## 2. 작품의 내용요약

아유타야 왕국의 프라판와싸 왕(이하 왕) 때에 썬판부리<sup>16)</sup> 에 세 집안이 있었다. 한 집안은 무관의 집안으로 쿤끄라이폰라파이(이하 쿤끄라이)와 텡쁘라씨<sup>17)</sup> 부부인데, 플라이깨우라는 이름의 아들을 두었다. 또 한 집안은 쿤씨위차이와 텡텡 부부의 집안으로, 쿤씨위차이는 관료이자 썬판부리에서 손가락을 꼽을 정도의 부호이다. 이 부부는 아들 쿤창<sup>18)</sup> 을 두었다. 그리고 또 한 집안은 판썬

14) 고본을 포함한 〈썬파 쿤창쿤팬〉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전체를 의미한다.

15) 본에 따라 다르고 대목에 따라 다르나, 일부 대목은 여성들이 듣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저속한 내용 또는 저속한 표현이었다.

16) 태국중부지역에 있는 도시로 방콕에서 버스로 약 3시간 가량 걸린다.

17) 텡쁘라씨는 당시 보통 여성들과 달리 상황판단이 빠르고 아들 플라이깨우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 훌륭한 스승을 찾아 이주하며 아들을 교육시켜 당대 최고의 명장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플라이깨우의 아들인 플라이용암도 교육시켜 부자를 당대의 뛰어난 무사로 만들었다.

18) 3살때 밖에 나가면 그 도래 애들이 모두 “귀신”이라며 도망쳤을 정도로 기괴하게 요새의 의계인처럼 생겼다.

요타와 씨뿌라짠 부부인데, 상인이었고 핼필라라이(이하 핼, 후에 완텡이라 개명함)라는 이름의 예쁜 딸을 두었다. 이 세 아이들은 친구였다.

쿤끄라이는 왕이 야생물소사냥을 나왔을 때 물소를 산채로 잡지 못한 죄로 사형에 처해졌다. 남편의 죽음 소식을 접한 텡뿌라씨는 관재를 피해 아들을 데리고 몰래 깐짜나부리로 피신하였다. 한편 쑤판부리에 있는 쿤창은 도둑이 집안에 들어 아버지가 살해되었고 핼의 아버지도 병이 들어 집에서 사망하였으므로 모두 편모슬하에서 성장하였다.

플라이깨우는 15살에 출가하여 학문을 닦기 시작했고, 후에 쑤판부리로 옮겨 더 깊은 학문을 닦았다. 이때 핼과 만나 사랑에 빠져 결국 스승과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환속하여 핼과 결혼하였다. 쿤창도 핼에게 구혼했으나 실패하였다.

결혼 2일만에 치앙마이군이 아유타야의 속국인 치안텡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플라이깨우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하고 자기가 핼을 차지하려는 속셈에서 쿤창은 왕에게 플라이깨우를 장수로 천거하였다. 그러나, 플라이깨우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쿤팬(이하 쿤팬)<sup>19)</sup>의 벼슬에 올라 깐짜나부리의 국경을 지키는 벼슬을 받았으며 라우텡을 부인으로 맞게 되었다.

남편이 전쟁에 간간 사이 핼은 병이 나서 완텡이라 이름을 바꾸고 완쾌되었다. 쿤창은 플라이깨우가 죽었다며 완텡의 어머니를 재물로 회유하며 결혼을 요구했고, 완텡 어머니 또한 딸에게 쿤창과 결혼할 것을 중용하였다. 완텡이 말을 듣지 않고 쿤팬이 지은 신접살림집<sup>20)</sup>에서 나오지 않자 완텡 어머니는 그 집을 뜯어 사위의 명복을 빈다는 명목으로 절에 시주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

19) 태국의 관등급은 아래로부터 타나이, 판, 문, 쿤, 루엡, 프라, 프라야, 짜오프라야 등의 8 등급이었으나 보통 쿤 이상을 벼슬했다고 하며 왕을 직접 알현할 수 있다. 수하에 프라이(백성)을 부릴 수 있었다.

20) 태국의 전통에 따르면 결혼할 때 신랑되는 사람은 신부집에서 내놓은 땅—주로 처가의 울타리 안에 있는 땅—에 자신의 재력과 힘으로 집을 짓고 결혼 후 그곳에서 산다. 평생 살기도 하고 애를 2-3명 낳은 후 분가하거나 본가로 가기도 한다.



자리에 쿤창에게 집을 짓도록 했다. 쿤팬의 어머니가 와서 항의를 해도 완텅의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마침내 완텅은 어머니의 강요로 결혼은 하였으나 쿤창을 거부하였다.

마침 그때 쿤팬이 돌아왔다. 완텅은 기다리던 쿤팬이 라우팅과 같이 온 것을 알고 질투심이 일어 라우팅과 싸우고 쿤창과 결혼하였다. 쿤팬은 라우팅을 데리고 깡짜나부리로 가버렸다.

그후 왕은 쿤창과 쿤팬을 아우타야로 불러 문씨와 함께 내직에 있게 했다. 하루는 라우팅이 갑자기 아프다는 전갈이 와서 쿤팬은 쿤창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집으로 갔으나 쿤창은 왕에게 쿤팬이 도망갔다고 모함하였다. 결국 쿤팬은 추방령을 받아 변방으로 내쫓겼고, 라우팅도 왕궁에 갇혔다.<sup>21)</sup>

쿤창의 소행에 분노한 쿤팬은 완텅을 되찾기 위해서는 강한 힘의 필요성을 느끼고 당시 비법서에 전해오는 3가지 보물, 즉 명검(천동검), 꾸만텅,<sup>22)</sup> 명마(백마, 씨떡)<sup>23)</sup>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성공하였다. 그후 완텅을 찾으러 쿤창의 집에 잠입하였다가 깨우끼리아를 만나 통정하고 속량하도록 도운 후 완텅과 함께 도망하였다. 쿤창은 왕에게 쿤팬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또 모함하여 군대를 보냈으나 아무도 그를 당할 수 없었다. 결국 왕은 분노하여 쿤팬과 완텅을 잡으라는 방을 전국에 붙였다. 두 사람은 산 속으로 다니며 사람의 눈길을 피해야 했다. 그러나 완텅이 만삭(8개월)이 되자 쿤팬은 따뜻하게 대해준 피젯의 성주에게 항복하여 이유타야로 압송되었다. 그러나 쿤팬은 문씨의 도

21) 라우팅에게는 왕궁 내에서 궁에서 사용하는 공예품의 수를 놓는 일을 시킴으로써 부부를 격리시키는 벌을 내렸다.

22) “꾸만텅”은 문자 그대로 “금색아들”귀신이다. 완전히 자라지 않은 태중의 사내 아이를 꺼내, 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은 아이를 꺼내 불에 구워 꾸들꾸들하게 말려 물기를 없앤 후 곁에 금을 입히고 주술을 불어넣어 주인의 마음대로 부리는 귀신이다. 쿤팬은 만아들을 낳을 상인 부어클리를 아내로 맞아 태중의 아들을 꾸만텅으로 만들어 평생의 반려처럼 부렸다. 전쟁터 등 쿤팬이 위협에 처하게 되면 꾸만텅이 도왔으며, 쿤팬은 꾸만텅을 시켜 이런저런 심부름도 시켰고, 다른 사람의 꿈에도 현몽하게 했다.

23) 마릿 말과 해마(海馬)의 혼혈마로, 토요일이자 9일에 태어났다.

움으로 왕의 용서를 받았고 대신 쿤창이 종신징역형에 처해졌으나 쿤팬은 쿤창의 행위를 용서하여 벌금형에 그쳤다.

쿤창과의 시비다툼에서 승소한 쿤팬은 완텡 및 깨우끼리아와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데, 왕궁 내에 격리되어 있는 라우팅이 불쌍해 용서를 구했으나 도리어 칼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쿤창은 완텡을 납치하였다. 완텡은 쿤창과 살면서 아들 플라이응암(Phlai-ngam)을 낳아 10살까지 키웠다. 쿤창은 커갈수록 쿤팬을 닮은 플라이응암이 자기 아들이 아님을 알고 플라이응암을 죽이려고 했다. 그는 플라이응암을 숲 속으로 끌고 가 때려 실신시킨 후 죽으라고 커다란 통나무로 눌러놓았다.

한편 아들을 염려한 쿤팬은 귀신에게 아들을 보살피게 했는데, 이 귀신의 도움으로 플라이응암이 구출되어 간짜나부리에 있는 할머니의 보살핌 아래서 공부하였다.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책으로 공부해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13살이 되어 끈쪽<sup>24)</sup> 의식을 한 후 왕의 시종이 되었다.

이때 란창왕국의 왕에게는 아름다운 딸 씨이팅이 있었는데 치앙마이 왕이 씨이팅을 요구했다. 란창왕은 거절하고 공주를 프라판와싸 왕에게 보내려하자 치앙마이왕이 중간에서 공주를 납치하고 아이유타야 왕에게 전쟁을 선포하였다. 플라이응암은 치앙마이전에 자원하고 옥에 갇혀있는 아버지와 같이 종군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때 쿤팬은 죄수 35명과 함께 종군할 것을 왕에게 요청했다. 왕은 모두 수락하고 라우팅도 용서했다. 깨우끼리아는 아들 플라이츄폰을 낳았다.

쿤팬은 북으로 가는 길에 피젯에 들러 맡겨둔 천동검과 씨먹을 찾았으며, 플라이응암은 피젯성주의 딸인 씨말라와 사랑에 빠져 약혼하고, 귀국 길에

24) 태국에서는 출생한 아이들의 머리를 정수리 부분만 남겨놓고 모두 깎는다. 이 머리카락을 "쪽"이라고 한다. 정수리 부분의 머리는 길게 기르는데, 정수리(수구멍 또는 정문)를 통해 아이의 혼이 드나든다고 생각했으므로 이곳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나이가 들면서 이 수구멍은 단단해지는데, "끈쪽"은 이 "쪽"을 밀어 없앤다(끈)는 의미로 이미 어린이가 아님을 의미한다.

혼인하기로 약조하였다. 쿤펜 부자는 대승리를 거두어 쿤펜은 간짜나부리 성주에, 플라ಿಯ암은 우시종장(이하 프라와이)에 봉해졌으며, 같이 참전한 죄수 35명에게도 각종 상이 내려졌다. 왕은 치앙마이 공주인 씨이화를 프라와이에게 하사하였다. 프라와이와 씨말라는 혼인하였다.

프라와이의 혼인날, 술에 취한 쿤창은 행패를 부리며 프라와이가 배은망덕하다고 비방하였다.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쿤창이 프라와이를 죽이려 했던 사실이 폭로되었다. 쿤창은 이를 부인하고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담남”을 했으나<sup>25)</sup> 실패했다. 쿤창의 죽음을 목전에 둔 완텡은 아들 프라와이에게 쿤창의 목숨을 사정하였다. 결국 프라와이의 요청으로 목숨을 건진 쿤창은 완텡과 쑤판부리로 돌아갔다.

그후 쿤펜의 가족이나 프라와이의 가족은 평안했으나 프라와이 자신은 자기 가정이 불가정이라는 생각에서, 또 아직도 쿤창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어 친어머니를 모셔오려고 쿤창의 집으로 갔다. 완텡이 선뜻 응하지 않자 프라와이는 당장 안가면 어머니 목이라도 가지고 가겠다고 위협하였다. 하는 수 없이 완텡은 쿤펜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쿤펜과 화해하지 못했다.

아내를 빼앗긴 데 화가 난 쿤창은 왕에게 완텡을 다시 찾으려고 쿤펜을 고소하였다. 이때 쿤창은 곤장을 30대나 맞았다.<sup>26)</sup> 고소사실을 심의한 왕은 마침내 완텡에게 쿤창, 쿤펜, 프라와이 중 한 남자를 택하도록 명했다. 그러나 왕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완텡의 대답에 왕은 완텡이 부정한 여인이라며 사형을 명하였다.

25)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불 속 걷기—걸어서 상처가 나지 않으면 결백—나 물속에 잠수해 있거나 오래 있어도 죽지 않으면 결백한 것임을 했다. 이외에도 불 속을 걸어 데거나 상처가 나지 않으면 결백한 것으로 치부한다. 이 둘을 “담남루이프렁” 또는 “루이남, 루이화이”라고 한다. 지금도 종교적인 의식에서 사용하고 있다.

26) 태국의 법에 따르면 남을 고소할 때에는 자신(고소인)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곤장을 맞도록 되어있다. 쿤창도 완텡을 되찾기 위한 일념에서 곤장을 30대 맞고, 그 후에 왕이 고소사실을 접수한 것이다.

한편, 프라와이의 두 부인 씨말라와 씨이화는 “카눔브영<sup>27)</sup>” 사건 이후 반목과 투기가 더욱더 심해졌다. 씨말라를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 버르던 씨이화는 프라와이가 씨말라를 더 사랑하자 마법승 테라콧<sup>28)</sup>을 찾아가 남편이 자신만 사랑하고 씨말라를 학대하도록 주문을 거는 “탐싸네” 의식을 하는데 성공하였다. 프라와이는 씨이화의 방에서만 살았고 씨말라를 학대하였다.

플라이츨폰은 이러한 프라와이가 마법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마법을 풀어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으므로 간짜나부리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자신은 꾸만텅의 보호를 받으며 쑤코타이에 계신 외가로 피신하였다. 아들의 변한 태도와 검게 변한 얼굴에 의심을 품은 쿤팬은 아들이 마법에 걸렸음을 확신하고 주문을 풀려고 했으나 프라와이는 아버지에게 대들며 전에 옥에서 빼내준 자신의 공을 내세우자 쿤팬은 부자관계를 끊을 것을 선언하고 간짜나부리로 가버렸다.

플라이츨폰은 쑤코타이에서 출가하여 학문을 익힌 후 아버지와 함께 계략을 세우고 주문으로 만든 병사들을 이끌고 간짜나부리를 공격하여 아버지를 포로로 잡았다. 프라와이가 왕명으로 원군을 갔으나 플라이츨폰과 쿤팬의 공격에 밀린 프라와이는 쿤팬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이 말을 믿지 않고 씨말라를 시켜 쿤팬과 플라이츨폰을 데려 오도록 했다. 쿤팬이 전후사실을 왕에게 아뢰자 플라이츨폰은 든씨를 증인으로 세우고 형의 마법을 풀고 마법승을 퇴치하겠다고 자원하였다.

플라이츨폰은 든씨와 함께 테라콧이 있는 사원으로 가서 마법을 걸었다는 고백과 함께 귀신을 묻어놓은 곳을 알아내어 마법을 풀었다. 테라콧은 도망했다.

한편 씨이화는 남편에게 주술을 건 사실을 부정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도리어 씨말라가 플라이츨폰과 눈이 맞았다고 모함하였으나 “루이화이”에

27) 쌀가루 반죽을 철판에 얇게 펴서 굽고, 야자의 속 등을 얹어서 절반으로 접은 과자임.

28) 주문에 능한 라오스 승려로 치앙마이에 있었는데, 씨이화가 आयुताया로 가게되자 치앙마이 왕이 어려울 때 돕도록 आयुताया의 왓프라야맨사원으로 쩌우승과 함께 보냈다.

실패하여 사형을 선고받았다. 임신 7개월의 무거운 몸이었으므로 씨말라의 탄원으로 추방당하였다. 씨이화는 치앙마이로 돌아가 아들 플라이용퐁농랏을 낳았고 씨말라도 아들 플라이펫과 동생 플라이부어 형제를 낳았다. 라우팅도 아들 플라이나롱을 낳았다.

그후 테라 콧은 플라이츰폰에게 복수할 뜻을 세우고 악어로 변신하여 아이유 타야로 가며 사람을 잡아먹으며 소란을 피웠다. 플라이츰폰이 악어를 잡아죽임으로써 테라 콧은 사망하였고 그 상으로 플라이츰폰은 루엥나이릿 벼슬을 하였다.

〈세파 쿤창쿤펜〉은 이 이후에도 계속된다. 프라판와싸 왕이 붕어하고 짝끄 라팻왕이 즉위한 뒤, 또 쿤펜과 플리깨우 등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손자의 시대가 열리며 많은 이야기가 복잡하게 전개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재미도 떨어지고 쿤창과 쿤펜의 이야기가 아니므로 이만 중략한다.

### Ⅲ. 〈세파 쿤창쿤펜〉의 작품 분석

#### 1. 작품에 나타난 태국인의 통과의례

〈세파 쿤창쿤펜〉은 주인공의 부모와 주인공, 그리고 자녀 등 3대에 걸친 이야기이므로 등장 인물의 출생, 성장, 결혼, 사망에 이르는 갖가지 통과의례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이 작품에 나오는 통과의례 중 일부는 아직도 지켜지고 있으며, 일부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또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임에 따라 변형되었으나 그 골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출생의식, 끈쭉의식, 출가의식, 결혼의식, 장례의식을 살피고자 한다.

##### 1) 출생에서 소년기에 이르는 의식

출생과 관련하여 이 작품에 나타난 산모의 입덧과 태교의 예를 보기로 하

자. 텡텡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배가 불렀고 열 달 내내 고기와 술을 즐겼는데, 고기는 어느 것이나 가리지 않고 결신들린 듯이 먹었다. 고기가 없으면 고기를 가져올 때까지 영영 울어대었다. 해산도 오랜 산고 끝에 어렵게 출산하였다. 온몸을 비틀어대며 아프다고 소리질러 온 식구와 산파(머뎌)를 정신없이 뛰게 만드는 등 온 집안 식구들의 진을 다 뺐다(pp. 5-6). 텡쁘라씨는 텡텡과 달리 임신 후 더 피부가 고와지고 아름다워졌으며 순산하였다(pp. 7-8). 임신 기간 중 텡쁘라씨는 조식으로 연꽃을 준비하여 불단에 바치며 기도 드리고,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출산을 겁내지 않았다. 씨쁘라짚도 역시 임신 후 더 편안해지고 순산하였는데, 예쁜 딸을 낳았다. 텡텡에게 있어서 태고는 안중에도 없었으나 텡쁘라씨와 씨쁘라짚은 임신 중 심신을 편안히 하고 불심으로 마음을 경건히 했다(p. 7).

출산 시에는 보통 아이를 받은 경험이 많은 산파(머뎌)의 도움을 받는다. 산파와 유모는 영아를 더운물로 목욕시킨 후 카민<sup>29)</sup>을 온 몸에 바른다. 그리고 키에 담아 키질을 하는 시늉을 한<sup>30)</sup> 후 이불에 뉘여 재웠으며(p. 8), 산모들은

29) 생강과의 식물로 그 뿌리를 갈아 야채나 향신료로 사용한다. 때로는 물에 개어 피부에 발라 피부를 희고 윤기나게 하기도 한다.

30) 영아를 키에 담아 까불며 돈을 주고 시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이를 점지한 귀신으로부터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다. 사람들은 귀신이 아이가 예쁘면 데려다 키우고, 반대면 인간이 키우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키로 까불어 아이가 놀래 울게 하여 귀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 다음 귀신이 포기한 그 아이를 돈을 줌으로써 영영 귀신으로부터 사버리는 것이다. 보통 3번 가볍게 까부는데, 이때 영아는 놀라 울게 된다. 산파는 키질을 할 때 "3일은 귀신의 자식이고 나흘은 사람의 자식이고 누구의 자식이든 와서 받아 가시오"라고 하면 애들을 많이 키우고 행실이 바른 여인이 "내 애요"하면서 키를 받아 간다. 이때 이 여인을 "매육"이라고 하는데, 산파에게 돈을 약간 준다.

\* 태국인들은 "아이피라이"라는 귀신이 나무 끝에 앉아 밤마다 온 세상의 것을 손에 닿는 대로 집어넣어 반죽을 해 어떤 형상을 만들고 있다고 믿는다. 한편, 지옥에서 죄업을 닦고 나온 영혼도 악령의 몸에서 벗어나 극락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가는 길을 찾아 이리저리 헤맨다. 이 혼령이 우연히 반죽을 하고 있는 "아이피라이"의 손에 잡히면 반죽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순간에 바로 여자의 자궁으로 들어가 임신되는 것이다(세파 쿤창쿤 p.2-3).

따뜻한 곳에서 산후조리를 했다.<sup>31)</sup>

영아가 출생 후 3일을 견디면 사람들은 안심하고 집에서 조용하고 간소하게 “탐판<sup>32)</sup>” 의식을 한다. “바이씨<sup>33)</sup>”를 만들어 중앙에 놓고 그 위에 금줄 은줄을 걸어놓은 다음 길시를 잡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할머니가 “플라이깨우의 영혼이여 어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몸에 들어와 있다오. 우리를 안심시켜다오. 꼬끼리랑 말, 식구와 하인들, 그리고 금과 은을 구경하오. 영혼이여 공연히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말고 이리로 와서 여기 있는 금줄과 은줄,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경하오”라는 말로 플라이깨우의 영혼을 달래어 플라이깨우의 몸 속에 들어있게 한 다음 촛불을 켜고 플라이깨우의 얼굴(이마)에 3개의 점을 찍고 아기의 천수만수를 빌었다(pp. 8-9).

아기가 태어난 지 한달 하루가 되는 날 아기의 배냇머리를 정수리(경문)부분만 남기고<sup>34)</sup> 삭발하는 의식, “곤 폼 화이”와 함께 정식으로 탐판의식을 한다. 이름을 짓기도 한다. 이때는 일가친척은 물론 온 동리 사람이 다 모여 축하하고 잔치를 벌인다.

탐판의식은 출생 3일 후와 한달 후 외에도 출가, 결혼, 출정, 아플 때, 집 떠

31) 태국에서는 “뒹따오하이” 또는 “년화이”라고 하며 출산 후 산모의 몸을 덥게 하는 몸조리법의 하나이다. 보통 3일, 7일, 21일 동안 등 대체로 홀수일 동안 조리한다.

32) 태국어로 “판”은 인간 개개인이나 지상의 생물이나 무생물 모두가 갖고 있는 무형의 정신으로 혼이나 영혼, 또는 혼백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갑자기 놀라 기절하면 “판니”(혼이 도망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깨어나면 나간 혼이 다시 몸 속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탐판”의식은 이러한 혼을 몸 속에 잡아두려는 의식이다. Ruth-Inge, Tham Kwan, pp. 1-16 참조.

33) 태국의 브라만 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가정의 형편에 따라 또 의식의 중요성과 완급에 따라 대체로 그 크기와 높이, 그리고 호화로움이 다르다. 바나나잎과 줄기, 음식, 삶은 계란, 꽃, 향과 초를 사용하여 다레탑 모양으로 높이 만들어 의식이 행해지는 장소의 중앙에 놓는다. 현재는 특히 북동부와 북부에서 많이 사용한다.

34) 태국인들은 정수리를 통해 영혼이 드나든다고 생각한다. 영혼이 나갔다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고 믿는다. 그래서 아기의 경우 정수리 머리를 길게 길러 영혼의 통행로를 보호하며 함부로 만지거나 누르지 못하게 한다.

난 사람의 귀향, 신입생 환영식 등등에도 한다(Ruth-Inge 1982: 1-16). 이 작품에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다. 플라이웅암이 간짜나부리로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할머니 텅쁘라씨는 분노와 애석함, 대견함과 사랑 등등이 복합된 묘한 감정으로 손자를 맞았는데, 그 위험한 길을 10살짜리가 혼자 걸어 왔으므로 그 날 밤에 바이씨를 만들어 손자에게 탐관의식을 한다. “귀신들이여 여기 좀 보오. 피곤을 무릎 쓰고 예까지 달려온 플라이웅암의 혼령이 제 자리를 찾아 들도록. 이 애가 장성하여 짝을 맞을 때까지 잘 자라도록 건강하게 해 주소서. 제발 혼령이여 돌아와 여기 차려놓은 생선 3-4 마리와 밥을 드소서”라고 빈다(p. 524).

완텅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렸을 때도 역시 씨쁘라짚은 혼령을 잃은 곳, 즉 병이 난 곳에서 본래의 제 혼령을 건져오는 “탐관”의식을 하고 개명한다. 밥과 반찬, 후식 등을 준비하여 차려놓고 “혼령이여, 다른 데로 가지 마시오. 호젓한 숲 속으로 들어가면 적적해 살 수 없습니다. 숲에서 호랑이, 해태, 곰, 토끼 등의 동물에 현혹되지 마시오. 코빨소, 코끼리, 사슴, 원숭이 등에도 빠지지 마시오. 여기 차린 음식을 먹고 병을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 이름을 완텅으로 바꿉니다.”(p. 230-231)라고 빈다.

## 2) 끈죽의식

야기가 자라 대략 13세(여자는 11세)가 되면 그 동안 길러 상투처럼 틀어 올려 핀으로 고정하였던 정수리의 배넛머리를 자르고 이른바 소년소녀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의 삭발의식을 “끈죽”이라고 한다. 이 의식으로 어린아이들은 이미 유아기를 벗어나게 됨을 의미하며 글을 배워 어른으로서의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할머니가 마련한 플라이웅암의 끈죽의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손자가 13살이 되자 텅쁘라씨는 길일을 잡아 온 동리 사람들과 함께 돼지다리 삶고 음식을 만들어 잔치를 벌이고 돛자리를 깔고 집안의 귀한 그릇들을 꺼내 상을 차린다. 그리고 승려 10분을 초빙하여 손자를 위한 독경을 하고. … 밤새 온갖 놀이와 더불어 잔치를 한다. 다음날 아침에 머리카락을 자른다(pp. 531-



532). 플라이옹암은 13살이 되기 전에 이미 공부를 많이 했으므로 삭발하지 않고 “마햇타이” 식<sup>35)</sup>으로 자르고 바로 왕의 시종으로 들어가나, 보통은 삭발을 하고 사미승으로 출가하여 공부를 시작한다. 여자는 집에서 어른으로부터 남편 섬기는 법과 음식 만들기, 바느질 등 살림을 배운다.

### 3) 출가의식

출가는 남자만 하는데, 평생 2번 한다. 6-13세 경에 끈쪽에 이어 사미승으로 몇 년간 출가하여 사원에서 승려를 스승으로 국문과 산수, 그리고 시 짓기 등을 배우는 사미승 출가와 20세 전후하여 정식으로 승려로서 출가하는 승려 출가 경우가 있다. 대체로 승려 출가가 더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나라의 관례와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사미승 출가는 현재 초등학교 입학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데(Prachak 1976: 33), 플라이깨우가 사미승으로 출가하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플라이깨우가) 열 다섯 살이 되어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는 때가 적어지고 장래에 아버지처럼 지덕을 겸비한 용감한 무사가 되려는 생각만을 일 년여를 두고 숙고한 끝에 어머니에게 공부를 하겠다고 즐랐다. 어느 승려고 학문이 높은 승려를 찾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게 해달라고 즐랐다(p. 45). 텅쁘라씨는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수소문하여 훌륭한 스승을 찾고, 아들에게 무사집안의 명예를 계승시키기 위해 출가준비를 하였다. 좋은 옷감을 꿰어다 정성껏 승려의 삼의와 일용품은 바느질하고 발우 등 기타 필수용품을 장만하였으며, 손님 접대용으로 음식과 기호품, 과자를 준비하였다.

출가하는 날 플라이깨우를 마치 속세의 때를 다 벗기어 내뿜 정성을 들여 깨끗이 목욕시켜 카민을 온몸에 바르고 머리를 민 다음 옷을 단정하게 입혔다. 그리고 가문에 걸맞는 큰 반지를 끼워 준 다음 향, 초, 연꽃을 들게 한 후

---

35) 정수리에 길렀던 머리를 약 10cm 전후하여 자르고 가운데 가르마를 한 남자의 머리형식이다. 대체로 머리의 윗부분은 계속 기르며 일정한 길이를 유지하나 머리의 양옆과 뒤는 삭발한다.

건장한 남자 어른의 등에 태우고 일산을 씌워 절로 데리고 갔다. 절에 도착하자 준비해 온 공양물을 안마당에 죽 늘어놓고 아들을 인도하여 분 승려에게 절하게 하고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허락을 받았다. 분 승려가 수락하고 계를 내리자 플라이깨우는 황색 승복으로 갈아입고 스승에게 인사하고 승려가 되었다(pp. 45-47).

이 작품에는 사미승 출가 외에 다비식 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출가도 완팅의 장례식 때 나타나지만 그 의식절차가 따로 나타나 있지 않다.

#### 4) 결혼의식

이 작품에는 결혼의식이 3번 나타나는데, 하나는 플라이깨우(쿤펜)와 핼의 결혼, 둘째는 쿤창과 핼의 결혼, 그리고 세번째는 플라이용암과 씨이화, 플라이용암과 씨말라의 결혼이다. 텡쁘라씨는 플라이깨우가 핼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공부를 더해야 된다고 말했으나 아들의 뜻을 꺾지 못하자 매과 서너 명과 함께 직접 핼의 집을 방문하였다. 씨쁘라짚은 11년만에 만난 텡쁘라씨를 반가이 맞으며 안부를 묻고 옛 얘기꽃을 피웠다. 핼에게 청혼하러 온 사실을 알게 되자 허락을 하며 “아들이 착하나? 노름하지 않고 술을 먹지 않으며 아편 등에 빠지지 않았느냐?”고 묻자 같이 간 매과들이 이구동성으로 “매우 잘 생겼으며 똑똑하고 도무지 악한 곳이라고는 없다”고 칭찬하고 “작년에 절에서 마타리편을 범문한 승려가 바로 플라이깨우”라고 일러준다(pp. 156-158).

씨쁘라짚은 12월 9일 토요일에 결혼을 승낙하고 은 15 찡,<sup>36)</sup> 칸막,<sup>37)</sup> 신부의 부모예물(웃감), 방 5개가 있는 신접살림집 등을 지참예물로 신랑측에게 요구하였다(p. 158). 이외에 결혼 당일에 있을 승려의 독경은 신부측에서 준비하기로 하고 쿤펜은 결혼 전날에 살림집을 완성한 다음날 아침 악단을 대동한 칸막행렬은 음악소리도 흥겹고 경쾌하게 씨쁘라짚의 집까지 길게 이어졌다. 신

36) 1 찡은 약 1,200 그램이므로 15 찡은 18킬로그램에 해당한다.

37) 결혼당일 신랑측이 신부측 집안에 보내는 음식이나 과일을 담은 쟁반을 든 신랑측 친지의 행렬을 의미한다.

랑일행이 신부집 앞에 닿자 신부측 여자들이 문을 막고 있었으므로 신랑 일행은 문을 통과할 때마다 돈을 내고 들어갔다(p. 160).

저녁나절에 신접살림집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을 플라이웅암과 씨말라의 결혼식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접살림집에서 독경이 있는 날 밤 신랑은 성장을 하고 친구들(들러리)과 함께 들어간다. 이때 신랑일행을 인도하는 남성은 명예나 덕망이 있는 기혼남으로 신랑측 어른이다. 승려의 독경이 끝나면 신부 부모가 신부친구(들러리)들에 둘러싸인 신부를 데리고 여성의 안내로 들어가는데, 이때 신부들러리들은 추근대는 신랑들러리들을 쫓아낼 무기로 굴나무가시를 하나씩 준비해 감추고 들어간다. 승려는 독경 후 신랑신부의 머리에 몽콘을 씌워주고 법사로 두 사람을 감아 가까이 다가가도록 유도한다. 부끄러움에 두 사람은 좀처럼 응하지 않고 버틴다. 이때 신랑들러리는 신랑의 옆으로 나란히 앉고 신부들러리들은 신부 옆으로 나란히 앉는데, 승려가 신랑신부는 물론 그들러리들의 옷이 다 젖도록 범수를 많이 뿌린다. 주위의 어른들도 합세하여 뿌린다. 들러리들은 신랑신부가 가까이 다가와 앉도록 밀어대고 또 물을 피하기도 하는데 이 와중에 굴나무가시에 찔린 들러리들은 아프다고 아우성이다. 이때가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되며, 물을 많이 맞은 어른(노인)들은 한기에 떨기도 한다. 마침내 신랑신부가 바짝 붙어 앉게 된다. 그후 사람들은 제각기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때 신부측은 신랑의 마른 옷과 빗 등을 모두 준비해 전한다. 보통 어린애들이 신랑의 젖은 옷을 받아다 물기를 짠 후 말려주는데 신랑은 그 수고비 또는 선물로 돈이나 반지 등의 선물을 옷깃에 매달아 둔다<sup>38)</sup>(p. 798-799). 승려가 절로 돌아간 후 휘황한 불빛아래서 음악과 함께 질펀한 음식잔치가 벌어진다.

다음 날 새벽 사람들은 부지런히 승려들의 아침공양을 준비한다. 즉 새벽시주를 준비하는 것이다. 신랑신부가 주격을 같이 잡고 공양을 퍼서 승려의 발

38) 현재는 이 의식이 간단한 “룻남” 의식, 즉 일가친지들이 오후에 모여 들러리를 세운 앞에서 신랑신부의 손에 물을 조금씩 부으며 덕담을 하는 의식으로 변했다.

우에 담아 시주하는 것으로 결혼생활의 첫걸음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다. 이때 주걱의 위를 잡는 사람이 평생 우위에 선다고 생각하나 이날은 어른의 권고로 신부가 위를 잡게 한다. 완텡은 부끄러워 주걱을 잡지 못하는 며느리 씨 말라의 팔꿈치를 밀어 잡게 했다(p. 801).

이날 밤에 첫날밤을 치르기도 하지만 길일을 택일하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플라이캐우는 완텡과 결혼할 때 사흘을 기다려야 했다. 결혼을 하는 딸을 둔 어머니의 마음은 어디나 같다. 핼이 결혼하는 날 씨쁘라짖은 아버도 없이 애지중지 키운 예쁜 딸을 보내며 사위에게 “오래도록, 죽는 날까지 서로 아끼며 의 좋게 살기를, 혹시 실수를 해도 가르치며 좋게 얘기하고 때리거나 욕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p. 164).

##### 5) 장례의식

이 작품에서 장례의식은 쿤팬의 아버지와 완텡의 장례의식이 나오는데, 전자는 매우 간략하고(pp. 43-44), 후자가 매우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쿤팬만을 사랑하던 완텡은 질투심 때문에 쿤창과 결혼했으나 결혼 직후 쿤팬이 함께 달아나자고 했을 때 사랑하는 남을 선선히 따라나섰다. 그후 임신하고, 임신한 몸으로 산 속을 전전하던 완텡은 쿤팬이 지수한 후(하옥됨) 쿤창에게 납치되어가 10여 년간 쿤창의 일방적이고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풍요롭게 살았다. 그러므로 프라와이가 치앙마이 전쟁 후에 완텡에게 같이 살기를 종용했을 때 이미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 친숙해진 완텡은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결국 사랑하는 아들의 협박에 못 이겨 완텡은 쿤팬의 집으로 가기는 하나 쿤팬과 확실한 화해는 하지 못하고 만다.

쿤창의 제소를 심판한 왕이 마침내 완텡에게 두 남편, 쿤창과 쿤팬 중 한 사람을 택하라며, 만일 그럴 수 없으면 아들과 살아도 된다며 한 남자를 택하고 명했을 때 섣뎀 어느 누구도 택하지 못하고 “쿤팬은 뭐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고 과거에 고난을 같이 겪었다. 쿤창은 여태까지 함께 살아 왔고

내게 헌신적이어서 조금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며, 또한 돈도 많아 부러울 게 없이 살았다. 배아파 낳은 자식인 프라와이는 쿤판 못지 않게 사랑하므로”(p. 860)라며 왕의 처분을 따르겠다는 뜻을 표하였다. 왕은 이에 “완텅이 두 마음을 가진 여자”(p. 861)라며 대노하고 사형을 명한다. 완텅은 아들에게 자신의 애뜻한 정을 남기며(p. 864) 형장의 이슬이 된다. 프라와이의 청원으로 완텅의 마음을 알게 된 왕은 사면을 명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고, 왕은 후히 완텅의 장례를 지내게 했다.

왕의 후원 하에서 여러 날을 흥겹게 각종 놀이를 하게 하며 국장에 가까운 장례를 지냈다(p.886). 낮에는 콘과 춤, 그리고 권투(격투기)를 공연하고 밤에는 각종 악기가 연주되는 가운데 흥겨운 그림자극을 공연하였다. 사형하여 땅에 묻었던 시신을 꺼내 목욕시키고 왕이 하사한 관에 넣어 안치하고 승려의 독경 속에서 운구하였는데, 하얀 상옷을 입은 플라이츄폰이 튀긴 쌀을 뿌리며<sup>39)</sup> 앞장섰고 그 뒤를 역시 하얀 상복을 입은 일가 친척이 뒤따랐다(p. 888). 관을 담은 상여는 마치 메루<sup>40)</sup>와 같이 높고 아름답다웠다. 3일장을 지내고, 다비식날 프라와이는 어머니의 명복을 위해 7일간 출가하였고, 쿤창도 3일간 사미승 출가를 하여 완텅의 명복을 빌었다(pp. 886-894).

## 2. 작품에 나타난 태국인의 믿음양상

믿음은 유형이든 무형이던, 좋은 내용이던 나쁜 내용이던, 또는 과학적 근거가 있던 없던 어느 하나의 내용이나 제안, 또는 현상을 사실이고 인지하고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따르는 의식행위로, 과학이 발달되기 이전부터 한 사

39) 튀밥을 뿌리는 이유는 튀밥이 썩어 나지 않는 것처럼 죽은 이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지방마다 뿌리는 이유와 물건이 다르다.

40) 수메루(수미산)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신이 사는 수미산으로 간다고 믿는 태국인의 믿음 때문이다. 평민은 메루, 왕은 프라수메루라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여나 다비대를 수미산 모양으로 만든다고 한다.

물에 대한 경외심이나 두려움, 또는 무지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인지가 깨이고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까지도 한 사회구성원 대부분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이 믿음은 종교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죄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은 누구든 좋은 일을 많이 하여 공덕을 쌓으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극락에 태어나 인간이 겪는 생노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악한 일, 즉 죄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끝이 없는 고통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아무도 극락이나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없어도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새파 쿤창쿤팬〉에 나타난 태국인의 믿음을 본 글에서는 꿈이나 징후에 관한 믿음, 주문이나 주술에 관한 믿음, 운(運)에 관한 믿음, 점성에 관한 믿음, 귀신에 관한 믿음, 죄와 업보에 관한 믿음, 학문에 관한 믿음 등으로 나누어 보려 한다.

### 1) 꿈이나 징후에 대한 인식

일반적으로 태국의 문학작품에서 꿈은 미래의 행불행, 또는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시해 준다(Prachak, 1976, 111).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새벽녘에 꾸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완팅이 완패된 후 집요하게 여러 사람까지 동원하고 완팅의 어머니에게 금품공세를 하는 외에 신표인 보리수가 시들게 함은 물론 화장터에서 주어진 뼈를 보이며 쿤팬의 죽음을 강조한 쿤창의 구혼에 대해 완팅은 “남편이 그 정도로 위험하게 되면 꿈에라도 무슨 징조가 나타날 것”(p. 238)이라며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데, 이 말은 당시 꿈이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예시한다는 믿음이 잘 나타나 있다(Ladda, 1977, 97). 이 작품에는 태몽을 위시하여 연꽃꿈, 크고 작은 사건을 예시하는 길몽과 흉몽 등이 나타난다.

연꽃꿈은 하늘의 별을 따는 꿈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꿈이다(Ladda, 1977, 99). 완팅이 쿤팬을 만날 때, 씨말라가 프라와이를 만날 때, 그리고 쿤창이 완팅을 다시 얻을 때 모두 연꽃꿈을 꾸었고 플라이깨우가 완팅을

만날 때 별꿈을 꾸다(p. 77).

완팅은 새벽녘에 “유모 씨이팅과 함께 헤엄을 쳐 연못을 중간쯤 건너는데, 똑바로 설 수 있을 정도의 깊이였다. 씨이팅이 그녀에게 황금빛 연꽃을 건네 주었는데, 그 향기에 기분이 상쾌해져서 마음먹었던 대로 다시 헤엄쳐 돌아오는” 꿈을 꾸었고(p. 64) 씨말라도 “연못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데 눈길을 끄는 연꽃 한 송이가 맑고 깨끗한 물위에 솟아 피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꺾어 들고 헤엄쳐 돌아와 남몰래 설레며 가슴에 안고 향기에 취하였다”(p. 628).

태국에서 연꽃은 부처님께 바치는 고귀한 연꽃인데, 보통 연꽃이 아니라 완팅의 “금빛 연꽃”은 매우 고귀한 연꽃으로 부유하고 자격을 갖춘 고귀한 신분의 반려자를 만난다는 예시다. 쿤팬은 미남이며 부유하고 신분도 고귀하고 태국이 공인하는 뛰어난 장수가 아니던가.

그러나 쿤창도 역시 “그가 나무를 하러 갔는데, 얇은 물을 건너자 커다란 호수가 나왔다. 그 연못에는 연꽃이 현란하게 피어있었는데, 편지 오래되어 꽃잎이 지고 있는”(p. 480-481) 연꽃꿈을 꾸었는데 시들어 잎이 지고 있는 연꽃을 본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마음은 이미 쿤팬에게 가 있는 완팅을 얻은 것이다.

꿈은 길몽뿐만 아니라 나쁜 일이나 죽음 등도 예시한다. 쿤끄라이가 야생물 소사냥을 나온 왕을 보좌하러 가던 날 새벽에 텅뽀라씨가 꾸 이가 빠지는 꿈, 그리고 완팅이 죽던 날 그녀 자신이 꾸 꿈 등등은 모두 흉몽으로 쿤끄라이, 플라ಿಯ암, 그리고 완팅의 죽음을 예고한다. 예를 들어 완팅은 “홀로 떨어져서 밀림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길을 잃어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때 사나운 호랑이 2 마리가 싸우는데 길가에 납작 엎드려 있다가 그녀가 다가가자 날쌔게 달려와 덤석 잡더니 숲 속으로 끌고 가는” 꿈을 꾸었는데(p. 854), 결국 그녀는 사형을 당하였다.

쿤팬이 쿤창과 살고 있는 완팅을 데리고 가던 날 아침 그녀는 “모기장(침실) 안에서 불을 피웠는데 그 불길이 번져 남편(쿤창)이 다 타버렸다. 내(완팅)가 놀라 진흙구덩이 속으로 굴러 떨어졌고 불길은 휘장, 요, 베개를 다 태웠다. 나

는 몸 여기저기가 빨개졌으나 아무도 불을 끄러 오는 사람이 없는”(p. 381) 꿈을 꾸었다.

라우팅도 남편과 헤어져 왕궁에 갇히던 날 “거인이 방으로 들어와 자고 있는 그녀를 끌어내 묶더니 철창 속에 가두었다. 그러던 중 꿈속에서 남편이 깊고 깊은 씨산 골짜기로 떨어지더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힘이 센 남자 한 사람이 오더니 라우팅과 남편 쿤팠을 안아 올려 거인의 세상에서 꺼내주는” 꿈(p. 324)에서 깨어났는데 이 꿈은 자신과 남편의 앞날을 예고한 것으로 후에는 구원을 받아 행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귀신이 일부러 사건을 알리기 위해 꿈에 현몽하는 경우도 있는데, 플라ಿಯ얌이 쿤창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하던 날 완텅이 꾸는 꿈이 있다.

태몽은 태아의 성별은 물론 아이의 운명이나 일생을 예시하기도 한다 (Prachak 1976: 20). 이 작품의 주인공인 쿤창과 쿤팠, 그리고 완텅의 어머니들과 완텅도 태몽은 다음과 같다.

텅텅은 “숫코끼리 한 마리가 죽어서 가파른 독을 굴러 내리는데, 그 머리는 커다랗게 부풀어 썩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그때 커다란 소무수리 한 마리가 우거진 숲에서 날아와 한 입에 그 코끼리를 물더니 그녀가 누워있는 안방으로 들어왔다. 꿈속에서 그녀는 그 대머리 새를 친근하게 불러들여 편안한 마음으로 썩은 코끼리와 함께 가슴에 안는”(p. 3) 꿈을 꾸었다. 이 꿈에서 깨어난 그녀는 온몸이 떨릴 뿐 아니라 꿈에 썩은 코끼리와 대머리 새를 안았던 가슴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토할 것 같이 메스메스했으며 도무지 진정할 수가 없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이들을 낳을 것이고, 우리 아들은 매우 큰 부자가 될 것이나 집안 망신을 시킬 것이며 태어날 때부터 코끼리를 물어 온 새처럼 대머리일 것이다(p. 3)”라고 해몽하였는데, 그녀는 소무수리를 닮아 못생긴 출생시부터 대머리 어린애, 즉 쿤창을 출산했고, 쿤창의 출산 후 재산과 가솔이 늘고 큰 부자가 되었다.

텅쁘라씨는 “프라인<sup>41)</sup>신이 커다란 보석반지를 가지고 날아와 그녀에게 주었는데, 받고 보니 그 영롱한 빛에 눈이 부신”(pp. 3-4.) 꿈에서 깨어나 남편에



게 꿈 얘기를 하니 남편은 “그 위대하신 신으로부터 반지를 받았고, 그 빛 또한 영롱하여 온 세상을 다 비치니 이 꿈은 매우 좋은 꿈으로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 아들은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나라이신과 같이 뛰어난 장수가 될 것이고 벼슬 또한 높을 것이다”(p. 4)라고 해몽하였다. 그녀는 잘생긴 쿤팬을 낳았다.

그리고 완팅의 어머니 씨쁘라짠은 “비스누신이 하늘에서 날아와 그녀의 손가락에 아름다운 반지를 끼워주고 다시 하늘나라로 날아가는 꿈을 꾸었다(p. 4). 남편은 반지를 얻어 끼었으니 딸을 낳을 것이며, 비스누신이 준 것이니 미모가 매우 뛰어나는 것이다”(p. 5)라고 해몽하였는데, 정말 예쁜 여자 아이 완팅을 낳았다.

한편, 완팅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 해를 따 가지고 내려와 삼켰더니 온 몸에서 빛이 났다. 그런데 한 남자가 당당한 모습으로 오더니 그녀의 오른 쪽 눈을 후벼내 버리자 세상이 깜깜해졌다. 그녀가 슬피 흐느껴 울었으나 그 눈을 돌려주지 않고 도리어 다른 쪽도 뽑아가니 온천지가 어두워지는”(p. 460) 꿈을 꾸었다. 이 꿈에 대해 남편 쿤팬은 대길몽이 아님을 알았으나 완팅에게는 세상이 우러러보는 훌륭한 아들을 낳을 꿈이라고만 해몽해 주었다. 그녀는 플라이용암을 낳았다.

## 2) 주문이나 주술에 관한 믿음

힘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강한 상대와 싸울 때 또는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호신부이나 부적, 영험한 물건 등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모든 것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쿤팬의 천동검, 꾸만팅, 백마 씨먹도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 작품에는 주문이나 주술에 관한 내용이 많다. 귀신이나 신을 불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다. 쿤팬과 아들 프라와이와 플라이츄폰, 테라캣, 35명의 죄수 및 몇몇 장수들과 도둑괴수가 주

---

41) 태국인이 최고의 신으로 간주하는 신이다.

문을 사용한다. 주로 전쟁터 등에서 늘 죽음과 맞부딪치는 생사를 곁에 두고 사는 인물들이 주문, 진언, 도술 등을 많이 사용한다. 주문을 외어 사람들을 잠들게 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꾸만텡과 천동검을 만들고, 적의 공격을 막아내며, 전쟁에서 모자라는 군대를 만든다. 쿤팬은 아들 프라 와이와 서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겨루는데 주술을 사용했다. 이들은 주술이나 주문을 이용한 대표적 예는 다음과 같다.

쿤팬은 주술과 주문 등으로 꾸만텡과 천동검을 만들었다. 꾸만텡의 경우는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이롭기까지 하다. 실제로 꾸만텡은 태국의 고전에 자주 나오는 귀여운 사내아이귀신으로,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재롱부리며 주인을 섬기는 충실한 귀신이다. 꾸만텡은 반드시 산월이 가까운 여성이 태아(사내아이)와 함께 사망했을 때 그 태아의 시신으로 만들었다. 세 가지 보물을 찾아 산 속을 헤매던 쿤팬이 도둑괴수의 목숨을 살려주자 괴수는 딸 부어클리르를 쿤팬에게 주어 함께 살려고 하나 후에 자신을 능가하는 힘을 가진 인물임을 알자 딸에게 독살을 명한다. 독살은 미수에 그쳤고, 이를 계기로 쿤팬은 아내로부터 “뱃속의 태아는 완전하고도 영원히 쿤팬의 아이”임을 인정받고 잠자는 아내의 배를 갈라 그 속에서 태아를 꺼내 비법서에 써있는 대로 여러 가지 부적과 주문을 사용하여 꾸만텡을 만들었다(pp. 350-353). 자신의 친아들로 만든 꾸만텡은 쿤팬의 개인사와 전쟁터에서 아버지를 도왔다.

천동검은 부처님의 사리를 안치한 탑 꼭대기에 있는 쇠, 시신을 담았던 관에 박았던 쇠, 이취형 문의 꼭대기에 있는 쇠 등 구하기 어려운 24가지를 구해 한데 녹여 칼모양을 만든 후 담금질을 하여 만들었는데, 그 3일간씩 담구어 두는 담금액 또한 특수하며, 7번 담금질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을 완성할 때는 나무를 베어 임시사당(싼피양따)를 짓고 향축은 물론 돼지머리 닭과 오리 고기 바이씨를 준비하여 신에게 제사지낸 후 토요일이자 보름날인 날을 택하였다. 이때 장인은 흰색 옷을 입고 각종 부적과 법사를 둘러맨 신성한 곳에서 쇠를 달구어 버리고 담금질한 후 장식을 새겨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었다(p.

357-360).

임시사당은 필요할 때마다 만드는데, 그 필요성은 주문으로 그 어떤 신성한 것을 유도해 내는데 있다. 쿤창의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도둑은 쭈판부리 쿤창의 집 근처에 와서 임시사당을 만들고 그 안에 도적들의 무기와 호신부 등을 넣고 제물과 술 및 음식을 차려놓고 신에게 자신들의 성공과 안전을 빈 후 술을 나누어 마시고 그 무기와 호신부로 무장한 다음 쿤창의 집에 들어 성공적으로 도둑질을 했다(pp. 36-37). 쿤팬은 사미승 시절부터 귀신을 부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몰래 완탕의 침실에 잠입할 때, 적과 대항할 때, 그리고 자기를 대신하여 아들(프라와이와 플라이츄폰)을 보호할 때 귀신을 부렸다.

프라와이가 몬 장수로 위장한 플라이츄폰과 겨룰 때 주문을 외어 무기를 만들고 플로 병사도 만들었으며(p. 1000-1001), 대기 중에서 화(火)기를 불러 온 들판을 불태우자, 수(水)기로 폭풍과 비를 불러 불을 끄으로써 대항했고, 또 이에 주문으로 그 비를 멈추게 하는 등 자유롭게 천지의 기를 이용하였고, 자신의 몸도 갖가지 동물로 변신하였다. 동물 변신은 플라이웅암이 치앙마이전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보일 때도 나타난다.

쿤팬부자 외에 마법승인 테라 콧이 “탐싸네” 의식을 하는데도 주문이 사용된다. 媚藥은 남편이나 어느 한 사람이 자기 한 사람만을 사랑하게 하는데 사용된다. 쿤팬 부자는 그냥 주문을 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사용한다. 쿤팬이 사미승일 때 사람들이 자신의 설법을 좋아하도록 밀을 입술에 바르고 주문을 외고(p. 61), 핍이 자신을 사랑하도록 하는데도 주문을 이용하였다(p. 68, 117). 그러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아 고급 방법이 요구된다. 테라 콧은 청동대접에 물을 붓고 주문을 외어 물을 끓여 넘치게 하고 그 대접을 씨이화에게 주자 그녀는 그 대접을 머리 위로 올려두고 남편이 자기 방으로만 오고 씨말라를 중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물로 머리를 감았다. 마법승은 키 퍽 빠피<sup>42)</sup>와 시신을 태운 재를 섞고 주문을 붙여넣어 반죽

42) 시신의 얼굴에, 또는 눈과 입에 붙였던 약 1cm 두께의 밀납이다.

한 다음 인간 모형을 만들어 각각 프라와이, 씨말라의 이름을 써넣은 후 등을 돌리게 붙이고 가시로 온몸을 찢러 시신 옆하듯이 묶은 다음 부적을 붙여 숲 속에 묻게 하였다. 또 한 쌍의 인형은 씨이텅과 프라와이의 것으로, 주술을 붙여놓으며 마주보고 꺾안도록 반죽해 만들고 법사로 두 사람을 묶은 후 씨이화에게 요 밑에 놓고 자라고 했다. 그리고 분에 여러 향내나는 기름을 섞어 온몸에 발라 프라와이가 향에 취하도록 했다(pp. 928-929). 그 결과 프라와이는 씨말라를 구박하고 씨이화만 사랑하게 되었다.

### 3) 운(運)에 관한 믿음

동물이나 신체의 이상, 꿈 등이 행운과 불운을 가져오거나 예고, 또는 신의 계시라고 믿으며 운을 시험하는 의식이다. 플라이깨우가 전장터로 떠나기 전에 완텅 및 어머니와 함께 보리수 3그루를 각각의 신표로 심고 완텅의 씨바이(웃웃)로 둘러싸며 쿤팬의 안녕과 승리를 빈다(p. 192-194). 쿤팬의 패전이나 죽음이 완텅과 텅쁘라씨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텅쁘라씨는 남편의 죽음으로 이미 국가의 형벌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했기에 석별을 아쉬워하는 신흠부부에게 플라이깨우의 안위를 멀리서나마 알 수 있는 신표로 보리수 심기를 제안한 것이다. 보리수는 바로 플라이깨우의 상징이다. 이때 플라이깨우는 제물을 차려 놓고 기도한다.

“저는 전쟁하러 북쪽으로 갑니다.

적을 이기게 되면

이 보리수가 아름답게 하소서

만일 죽게 되면

이 보리수도 따라 죽게 하소서

죽지 않고 건강하면

이 보리수도 싱싱하게 자라게 하소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보리수가 밀립을 이룬 듯하게 하소서”(p.193)

동물의 경우는 다양하다. 동물이 비정상적인 소리를 내거나 행위를 하면 그것은 바로 그 목격자에게 불운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대체로 거미, 쥐, 쩡쪽(집도마뱀), 올빼미, 코브라 등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거미가 가슴을 치는 소리를 듣거나 보면 그 목격자 또는 측근자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 〈세파 쿤창쿤팬〉에서는 이 소리를 듣거나 이 모양을 본 경우 모두 사망하였다. 쿤끄라이가 들소사냥 나가던 날 온 집안 식구들이 이 소리를 들었으며(p. 17), 완팅이 사형당하던 날 쿤팬과 완팅이 이 소리를 들었다. 특히 완팅이 죽던 날 벽에서는 거미가 가슴을 치며 울고, 쥐도 침대 밑에서 소리를 내며 울었다(p. 854).

쩡쪽의 징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모두 불길한 징조이다. 무슨 일을 시작하던가 출타하려할 때 쨍쪽이 나타나 울면 그 일이나 출행을 중지한다. 반드시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쿤팬이 쿤창집에 숨어들어 완팅이 쿤창과 동침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가 끓어올라 칼로 내리치려 했으나 쨍쪽이 울어 그만 두었다(p. 293). 또한 쨍쪽이 누군가의 면전에서 떨어져 죽으면 반드시 누가 죽거나 죽음 소식을 듣는다고 믿는다. 플라이츨폰에게 복수하러 떠났던 테라콧은 쨍쪽이 떨어져 죽는 것을 보았고 올빼미도 날았고, 가는 길에 코브라도 길을 막았다(p. 1055). 올빼미가 누군가의 머리 위나 집 위를 난다면 그 사람이나 그 집안에서 죽는 사람이 생긴다 했는데, 결국 그는 플라이츨폰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외에 갑자기 남편의 머리가 보이지 않고 어깨만 보이는 것, 집에서 내려오는 층계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 집의 주기둥에 이상이 생기는 것(얼룩이 생기거나 기름이 흐름), 방향에 대한 금기(라우렉과 피루엣), 구름을 보고 운세 점치기(손이 4개인 프라나라이가 보일 때에는 길운), 해와 달, 그리고

별을 보고 점치기 등이 있다.

먼길을 떠날 때나 전쟁 출정 등 집을 오래 떠나야 할 경우 출발 직전에 오른 쪽으로 세 번 돌고 떠나는데 이 행위도 역시 길행의 안위와 평안, 승리 등(p. 79)을 위한 것이다.

#### 4) 점성에 관한 믿음

액막이, 길일과 길시를 잡는 것, 미리 점을 보는 것, 나쁜 일을 좋은 일로 수정하는 것 등이 있는데, 길일과 길시를 잡는 이야기는 전편에 걸쳐 많이 나온다. 왓빠레라이 사원의 쭈 승려는 특히 이 방면에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승리할 날을 잡고 제사를 지낸다. 플라이 춤꾼이 쭈코타이 외가로 갈 때도 쿤팬은 길일을 잡아 슬픔 대신 행복과 발전만 있을 그런 날에 꾸만텅을 달려보내 안전을 도모하였다(p. 944).

그리고 액을 막는 방편의 하나로 이름을 바꾼다. 태국인들은 이름과 일생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믿으므로 이름을 지어 받는 것이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매우 축복 받는 일로 간주된다. 이름을 지을 때는 아이가 출생한 연월일과 시, 꿈, 성(性)이, 출생 때 일어난 사건, 얼굴이나 체구, 외모 등등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뿌라텅팅이 태몽에 코끼리를 보았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왕에게 백상<sup>43)</sup>을 바치는 일이 있었으므로 “창(코끼리)”라는 단어를 붙여 쿤창이라 지었고(p. 6), 플라이깨우도 구슬(깨우)을 중국왕이 프라판와싸왕에게 보낸 날에 태어났으므로 “수코끼리” 또는 “사나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플라이와 붙여 플라이깨우라고 이름지었다.

이외에도 이름이 나쁘면 운이 나빠다던가 병에 잘 걸리거나 요절하므로 운세가 나쁠 때 이름을 바꾸어 운명이나 운세를 바꾼다. 예를 들어 전선에 나간 남편으로부터 전혀 소식이 없자 애를 태우던 완텅이 병에 걸려 백약이 무효이

43) 흰코끼리를 의미하는데, 태국인들은 보통 코끼리보다 더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커서 권력과 덕을 많이 가지기’를 희망하며 ‘쿤창’이라 이름짓는다.

자 이름을 바꾸어야 낫는다는 왓빠레라이 사원의 주 승려의 권에 따라 완텡으로 바꾸었으며, 개명과 함께 병이 나았던 것이다.

완텡은 남편의 죽음에 대한 불길한 얘기를 듣고, 또 남편의 빠라며 쿤창이 들고 온 유골함을 보고 싸이텡과 함께 완텡은 절에 가서 주 스님에게 남편의 안위를 묻는다. 스님은 “남편은 승전하여 사람과 물건 등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올 것이니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말라”(p. 238)고 당부한다. 스님의 말을 믿지 않은 어머니가 쿤창과의 결혼을 계속 주장하며 때리자 완텡은 보리수를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을 들은 쿤창은 코끼리를 타고 한달음에 보리수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아직은 어린 나무이지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 보리수 중 가운데에 있는 보리수를 잡고 잎이 다 떨어지도록 세게 흔들어 마침내 불에 데인 듯 잎이 시들고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 시든 보리수를 보고 남편의 죽음을 믿었던 완텡이 주 스님에게 찾아가 다시 남편의 안위를 물었을 때 스님은 들고 온 돈으로 부처님을 조성하여 공덕을 쌓으라며 늦어도 한 달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 5) 귀신이나 신에 관한 믿음

태국인은 옛부터 모든 사물에는 주인(신 또는 정령)이 있으므로 모든 신과 정령을 경배해야 한다는 생각과 아울러 물질보다는 무형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Anumam 1988: 226-229). 신을 경배할 때나 두려울 때 주문이나 경문 또는 주술을 사용하여 안위를 기원한다. 브라만 문화의 영향이다.

태국인들은 잉태와 병, 또는 죽음이 귀신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나무꼭대기에는 쉐라이 귀신이 살고 있는데, 이 귀신의 반죽에 의해 인간이 출생한다고 믿는다. 〈셰파 쿤창쿤팬〉에는 어린애의 점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인간출생에 대해 얘기해 보세

자궁에 들어갈 땀 보면  
나무꼭대기에 사는 쉼라이 귀신이

밤마다 킁킁대며 뭔가 빛네  
각기 다르게 꼬고 두드려 빛네

주물러 반죽하며 고대하네  
골고루 갖춰 넣을 궁리하네

어느 밤 귀신이 나무꼭대기에 있고  
아직 지옥에 중생이 남아 있어

불성으로 인고함으로써  
악업과를 소멸하고

아귀의 몸을 벗어  
행복 찾아 이리저리 움직일 때

온갖 고뇌 벗어나 극락 가려 할 때  
귀신이 함께 빛어 자궁 속에 넣는다네(pp. 2-3)

아기의 잉태 외에 인간의 죽음도 역시 귀신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완텅의 아버지가 병사한 것도 귀신이 몸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며(p. 42), 완텅의 병도 귀신에 의한 것, 아버지의 귀신이 딸에게 썬 것이라 생각했다(pp. 228-229).

그러므로 아기 출산시 향축을 밝히고 조상신, 신, 가택신, 지신 등등에게 성수를 뿌리며 주문을 외워 순산을 기원한다(p. 6). 산모가 쉽게 출산하지 못하면



액막이하고 그 성수를 먹여 고통을 줄이고 순산을 돕는다(p. 627). 초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신이나 정령에 대한 경배나 제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이는데, 이미 언급한 생후 1개월 이내의 영아나 출가하는 아들에게 하는 탐관 의식, 결혼 의식에서 뭇남 의식 등이 있다.

전쟁은 많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적과의 싸움이므로 아군의 승리를 기원하며 길일을 잡아 출정한다. 이때 왕과 장수, 방위 등을 고려하여 점을 보아 알맞은 의식을 행하며 군대의 안전과 승리를 신에게 빈다. 치앙마이 전투의 경우 왕은 점술가를 불러 길일과 길시를 잡으라고 명한다. 점술가는 이번 7월 10시 9분에 출정하면 신이 도와 군대도 안전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p. 616-619). 군사들은 무예를 연마하는 외에 전쟁에 임할 때 신체적·정신적 안위를 위해 모두 호신부나 부적을 찾다. 전투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쿤뎨는 아들 프라와이와 함께 호신부와 부적을 만들고 주문을 외어 신성한 힘을 불어넣었으며 숲에 임시사당을 지어 법사를 세 겹 두른 후 신을 불러 전승과 군대의 안위를 빌고 귀신을 불러내어 전쟁을 돕도록 하고 신성한 힘을 불어넣은 호신부를 병사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출전 직전에 부자는 꽃과 향촉이 담긴 쟁반을 왕에게 바치며 승전을 다짐하고 텅쁘라씨에게도 하직인사를 하였다(pp. 621-622).

#### 6) 죄와 업보에 관한 믿음

태국인의 불교적 가치관은 전편에 흐른다. 송끄란에 음식을 보시함으로써 탐분하는 일이나 석가의 본생담은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쌓도록, 일상생활에서 8정도를 지키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계속 모함하는 쿤창을 죽이겠다는 쿤뎨에게 어머니는 죄, 공덕, 벌 그리고 선업과 악업이 모두 전생과 관계됨을 상기시키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타이르고, 사형을 받은 쿤창이나 씨이화 등등을 쿤뎨와 씨말라가 용서함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도 다 이러한 믿음에 연유한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은 없지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보이는 방법으로 태국

인들은 소위 “루이화이” 또는 “루이남(담남)” 방법을 택한다. 물 속에 오래 잠수해 있거나 불 속을 걸어도 잘못이 없으면 “불에 떨어져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흘러 내려가 죽지 않는다”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Prachak 1976: 87-90). 이 작품에서 씨이화는 媚法(탐싸네)의식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도리어 씨말라가 시동생 플라이츨폰과 눈이 맞았다고 모함하였다. 결국 씨말라와 씨이화는 “루이화이”를 통하여 결백을 증명하도록 명 받았으나 씨이화는 실패하여(p. 1032-1033) 사형을 받게 되나 씨말라는 사면을 요구한다. 악업을 악업으로 갚아 자신의 악업을 더 두껍게 만들지 않겠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죽지 않아도 임신한 몸으로 고된 여행을 해야 하던가 남편을 기다리는 죽느니만 못한 고통을 살아 감내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쿤끄라이가 사형직전에 자신의 덧없는 죽음을 자신의 업보에 비추어 보고 체념 속에서 다음과 같이 한탄하며 처자를 그리워한다.

오! 내 신세여  
 전생에 무슨 업은 지었기에

이 외진 숲 속에서 죽는단 말인가  
 내 몸은 독수리와 까마귀밥이 되고

두 눈도 나를 다시 볼 수 없으며  
 사랑하는 아내도 보지 못하리(p. 27)

썸텅의 성주가 라우팅을 플라이깨우에게 시집보내며 떨어지기를 두려워하는 딸에게 “인간은 업보가 좋으면 어려운 지경에 놓여도 복을 받고 행복하게 되지만, 만일 전생의 업보가 나쁘면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라며 업보와 운에 빚대어 딸을 위로하고(pp. 209-210) 이러한 가르침에 라우팅은 순순히 응한다.

### 7) 학문에 관한 믿음

6·7세가 되면, 또는 끈쪽의식을 한 뒤에 어린애들은 성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거주하며 교육도 달리 받는다. 여성의 경우 주로 집안에 있으며 외출할 때에는 남녀모두 부모나 몸종을 대동하고 다닌다.

플라이깨우가 출가하여 땀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플라이옹암이 할머니와 함께 아버지 쿤팬을 면회 갔을 때 텅쁘라씨와 쿤팬 및 완텅은 각각 쿤팬과 플라이옹암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타일렀다. 여기서 공부는 학문적 지식의 습득만을 위한다기보다 정신적 수양과 불교교리의 습득 및 병법 익히기 그리고 자유로운 주문 사용 등을 의미한다.

왕의 부름을 받아 내직에 들려는 쿤팬에게 텅쁘라씨는 “옛 어른들의 말씀에 성인이 지켜야 할 4가지 도리가 있으니 하나는 착하고 뿌리가 깊은 사람이 되어 언행과 생각에 법도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공부를 많이 하여 지식을 쌓는 것이며, 하나는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고 선과 악, 미와 추에 대한 분별이 있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결코 흐려지지 않는 명석하고 현명한 지혜를 지녀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결코 자만하지 말며, 정직해야 할 것, 왕에게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 목숨까지도 희생할 줄 아는 책임감과 분별력을 잊지 않도록”(pp. 315-316) 가르쳤다.

한편, 완텅은 “남자가 추구해야 할 것은 명예이니 학문을 게을리 하지 말라”(p. 519)고 당부하고 아버지는 “세상 모든 것을 알아도 학문이 깊음만 못하다. 커서 어른이 되면 모두 네 자신에게 득이 될 테니 장래를 위해 공부하라”(p. 527)고 옥중에서 아들에게 가르친다. 플라이옹암은 공부를 마친 후 왕실의 법도를 익히기 위해 왕실 시종이 된다.

## IV. 작품에 나타난 태국인의 관료선호 의식

당시 태국사회는 위로는 왕과 왕족, 평민, 노예로 구성된 계층사회이자 신

분사회였다. 왕족이나 평민이 출가함으로써 형성되는 승단은 이 세속적인 사회와 구분된다. 이 계층에 속한 구성원들은 그 신분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보통 평민 이상의 신분의 태국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쿤창의 집안과 쿤팬의 집안은 평민집안이나 국가에 공을 세우고 벼슬을 한 관료집안이다. 관료는 평민 중에서 국가에 공을 세우거나 고위 관료에 의해 천거되어 왕을 대신하여 국가의 일을 보는 계층이다. 보통 왕족이라고 호칭되는 계층, 즉 왕의 직계나 방계의 존속이나 비속과 구분된다.

쿤팬의 아버지 쿤끄라이는 후퇴를 모르는 명장으로, 프라이 700호를 거느리고 있는 무관이었다. 쿤창의 아버지 쿤씨위차이는 쑤판부리에서 상군(象軍)을 관할하는 문관이었고, 판썬요타는 부유한 상인이었다. 그러므로 쿤씨위차이는 아들 쿤창을 어려서부터 시종으로 보내 관료의 길에 들게 했다. 그러나 아버지 쿤끄라이가 왕명거역죄로 사형된 후 피신해 있던 플라이깨우는 치앙팅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다시 관직에 오른다.

예로부터 벼슬에 오르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간주하였던 태국인들은, 특히 아들을 둔 관료, 즉 양반들은 어려서부터 아들을 왕에게 데리고 가 알현시켜 측근에서 시종으로 일하게 했으며, 성장하면 왕이나 귀족의 천거에 의해 관직에 오르게 했다. 과거 등 관료등용의 다른 공식적 방법이 없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썬파 쿤창쿤팬〉에서도 양반은 아들을 낳으면 어려서부터 예의를 갖추어 왕에게 인사를 시켜야 했고, 이를 어기면 벌을 받았다. 이는 왕이 아이의 얼굴을 익혀 필요한 때에 부를 수 있게 함이었다. 쿤창의 아버지는 음식과 향촉, 그리고 꽃을 준비하여 어린 아들을 코끼리에 태우고 직접 아우타야로 떠나 왕을 알현토록 하였다(p. 12-13). 역시도 옥중에 있는 쿤팬의 부탁을 받아 끈צוע을 끝낸 13세의 플라이응암을 데리고 왕궁으로 가 왕에게 알현시키고 시종으로 천거한다. 이때도 목욕을 시킨 후 제일 좋은 옷을 입힌 후 길일을 잡아 향촉, 그리고 꽃을 마련해 가지고 갔다(p. 535-536).

왕은 절대적 존재였다. 비록 왕명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해도, 기본대로 벌을 내린다 해도 모두 순종하였다. 이 순종은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해되고 상과 벌이 사회를 통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왕이 사냥 나온 날 모든 흉조에도 불구하고 말은 바 임무를 지키기 위해 쿤끄라이가 출정하는 모습이 바로 충성심이자 책임감 있는 관료의 모습이다. 국가(왕)에 대한 충성심은 태내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 무사의 길을 택하게 했다. 왕을 따르는 일이 쿤팬의 의무였다. 이렇듯 쿤팬과 그 아들들은 모두 일신상의 안위나 행복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한다. 이 점이 바로 바람둥이인 그가 사랑 받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 모습은 한편으로 운명을 받아드리는 체념의 미학도 된다.

공로를 세운 관료는 왕으로부터 은공을 하사 받는다. 공과는 벼슬이나 진급 등의 형태로 나타나나 전쟁의 경우 장수에게는 전리품이 공과에 따라 분배된다. 전리품 속에는 재물도 있지만 사람도 포함된다. 치앙마이 전투에서 승리한 프라와이에게 씨말라와의 결혼식날에 전리품인 치앙마이 공주 씨이화를 하사한다. 프라와이는 같은 날 두 명의 부인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치앙텅 전투에서 승리한 플라이깨우는 쿤팬의 벼슬을 하고 라우텅이라는 이름의 여인도 얻어 귀경한다. 왕의 윤허를 얻은 쿤팬은 라우텅을 데리고 본부인인 완텅에게 인사시키기 위해 오지만 완텅은 학수고대하던 남편이 새 여인을 데리고 온 사실에 질투심으로 전후를 가리지 않고 분노한다. 남편의 만류도 뿌리치고 라우텅과 싸운다. 이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존경심의 종말을 의미한다. 한 나라에서 왕이 절대적인 존재이듯이 한 집안에서는 가장이 그 만큼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 V. 결론

15세기경에 태국의 중부지역, 즉 쑤판부리와 깐짠부리에서 실제 있었던 3 가족간의 사랑이야기가 구전되다가 20세기에 본격적으로 기록되어 전해오는

이야기인 〈쇄과 쿤창쿤팬〉에 나타난 사회상과 그 의식구조를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태국인의 관료선호 사상을 들 수 있다. 완텅의 아버지처럼 상인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남자주인공을 모두 관료로 성장시킨 점은 관료직이 당시 선망의 직업이라는 견해 외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평민도 국가에 공을 세우면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대변한 것이라고 본다. 당시 관료의 식음제도가 인정되었던 사회였으므로 관직에 오르면, 그 자체가 가문의 영예이고 권위와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업에 대한 가치관은 근래까지 이어지다가 최근에 이르러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세분화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변화가 있게 되었다.

태국 사회가 문화적으로 중층사회인 것을 잘 말하고 있다. 특히 당시는 주술이 매우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시 명장이자 맹장인 쿤끄라이를 비롯하여 쿤팬, 프라와이, 그리고 플라이츄폰이 모두 주문이나 경문 등과 같은 주술이나 마법을 익혀 자신의 개인사는 물론 전쟁에 사용하였다. 특히 치앙마이 전에 쿤팬이 사면을 받아 이들과 참전할 때 옥에 갇혀 있던 죄수 중 주문에 능한 다른 35명의 죄수들이 같이 참전한 사실은 주술이 당시 매우 성했음을 말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부적이나 호신부 또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진 물건 등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물건들은 사용자의 용기에 따라 그 효험이 있다. 현재 주문 등 비과학적인 요소는 다 사라지고 액막이 정도로 남아있지만 호신부나 부적 등을 믿는 마음은 현재도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다.

남성의 통과의례 중 사미승 출가는 현재의 학교공부를 위한 출가와 맥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플라이깨우가 완텅과 결혼하기 위해 환속할 것을 어머니에게 요구하자 어머니가 환속을 말리며 더 출가해 학문을 완성하도록 종용하였다. 이로 보아 사미승출가는 학문을 위주로 하며, 학문이 높은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적 성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다만 교육 장소와 내용이 바뀌었다. 과거의 교과내용은 태국어를 읽고 쓰고 글 짓는 법, 셈하기, 불경을 기본적으로 하고, 호신술이나 공격술을 익혔다. 예를

들어 쿤판은 15살에 깐짜나부리에 있는 쏘야이 사원에서 기본공부를 한 후 더 나은 스승을 찾아 쭈판부리에 있는 왓빠레라이으로 갔고, 후에 다시 왓캐로 가서 무사로서 더 많은 공부를 했는데, 이중에는 주문으로 사람을 잠들게 하는 법, 신출귀몰법, 변신하는 법, 구름이나 비, 벼락 등을 부르는 법, 귀신을 불러 부리는 법 등을 공부하였다. 현재는 비과학적인 내용은 사라졌고, 근대화 이후 서양식 학교의 설립으로 교육장소도 학교로 바뀌었다. 통과 의례 중 결혼, 장례, 성인출가는 그 기본적인 틀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으나 끈쪽은 현대 의술과 과학 및 교육의 도입으로 거의 사라졌다고 본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사원이 태국인의 구심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플라이 깨우가 지은 완탱과의 신접살림집을 뜯어 절에 바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정표인 집을 순순히 포기한 완탱의 태도에서 플라이깨우에 대한 사랑과 사원이 정신적 구심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스님에게 상의하고 의견을 구하는 모습은 현재도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

의식면에서는 불교의식보다 힌두의식이 더 많이 나타나 있다. 아유타야 시대 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된 시기에는 아직도 크메르 문화가 지배계층을 지배하던 문화였으므로 불교적 의식보다는 브라만 의식이 더 강하게 나타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의식이나 제의가 승려가 주도하는 불교적 의식으로 바뀐 것은 라마 5세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꿈이나 동식물의 행위로 인한 흉조와 길조 예시에 대한 믿음과 점성 및 운세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을 대상으로 한 믿음양상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다.

기타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구습, 즉 빗으로 딸을 파는 행위, 딸을 물건처럼 선물이나 은혜에 보답하는 미인계, 제소에 앞서 곤장을 맞는 일, 물 속에 잠수 하거나 불 속을 걸어 결백을 증명하는 방법은 사라졌다. 굳이 말하자면 가난한 집안에서 딸을 파는 인신매매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면 과거의 잘못된 인습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다.

주제어 : 쿤창쿤펜, 쎄파, 태국민속, 태국통과의례, 태국민속체계

### 참고문헌

- 김영애. 2001. 『태국사』 서울: 한국외대출판부.
- Anuman Rajadhon. 1986. *Popular Buddhism in Siam and Other Essays on Other Essays on Thai Studies*. Bangkok: Thai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Development & Sathirakoses Nagapradipa Foundation.
- Anuman Rajadhon. 1987. *Some Traditions of the Thai*. Bangkok: Thai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Development & Sathirakoses Nagapradipa Foundation.
- Anuman Rajadhon. 1988. *Essays on Thai Folklore*. Bangkok: Thai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Development & Sathirakoses Nagapradipa Foundation.
- Benjawan Songsomboon. 1997. “Bodwikrao Sepha Ruang Khunchangkunphaen : Kan Seuksa nai cheongwannakhadiwikrao”(쎄파 쿤창쿤펜 비평 : 문학비평 측면에서). Bangsaen: Burapha University 석사학위 청구논문.
- Damrongrachanuphab, Kromphraya. 1965. *Sepha Reuang Khunchang Khunphaen*(쎄파 쿤창쿤펜, 국립도서관본). Bangkok: Silapabannakhan.
- Damrongrachanuphab, kromphraya. 1930. *Tamnankhruangmahoripiphad Chababchamramai* (태국악기교본신개정판). Bangkok: Sophonphiphadthanakhan.
- Hosamudhaengchad. 1963. *Khunchang Khunphaen*. Bangkok: Klangwithaya.
- Ladda Panoothai. 1977. “Wikhro Sanyalak nai Wannakhadithai”(태국문학의 상징연구). Bangkok: Srinakharinwirot University 석사학위 청구논문.
- Panya Borisudt. 1999. *Wikhro Wannakhadi thai doipraphed* (장르별 태국 문학 비평),



Bangkok: Rachbandhitsathan.

Pensri Duke(ed.). 1985. *Khati KhuamCheua* (태국인의 믿음).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press.

Prachak Praphaphithayakon. 1976. *Prapheni lae Sayawedwithaya nai Khunchang KhunPhaen* (쿤창쿤펜에 나타난 관습과 주술). Bangkok: Chareontham.

Ruth-Inge Heinze. 1982. *Tham Khwan*, Singapore University Press.

Saowalak Anantasad. 1979. *Wannakamek khongthai* (태국의 걸작). Bangkok : Ramkhamhaeng University press.

Sompraj Ammaphan. 1987. *Prapeni lae Phithikam nai Wannakhadi Thai* (태국문학에 나타난 의식과 관습). Pattani: Songkla University press.

Sukhothaithammathiraj University. 1988. *Thai 4*. Bangkok : Sukhothaithammathi-raj University press.

Wandi Namfa. 2000. “*Khuamkhadyeng nai Sepha Ruang Khunchang Khun-Phaen*” (쿤창쿤펜에 나타난 갈등). Bangkok: Srinakharinwirod University 석사학위 청구논문.

Abstract

## Thai Society in *Khunchang Khunphaen*

Young-Aih Kim

In the time when there were no characters or those who can be literate are so few, people handed their story down from mouth to mouth, and the story tellers(later reciter or singer) would put the historic scene, Episodes or accidents of their times into their story help their listener understand more and make them interesting. Therefore, their society's value was reflected in the oral traditional literature of epos.

The story of *Khunchang Khunphaen*, one of the great works in Thai literature is a true triangular love story between three persons, a beautiful woman, Wanthong and two lovers, *Khunchang* and *Khunphaen*. This story would be handed down orally by story tellers for about 500 years in front of crowds on festival days, and it was recollected and born as a perfect literature work by Rama the VI in 1917.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he reconstruct of society at that time through the study about the ways of life and social conceptions and beliefs in the work "*Khunchang Khunphaen*," so there are some conclusions. First, Thai was more prefer to be government officials than any jobs. They believed that good jobs brought honor or fame and wealth. This is changing now around the educated class in a big city while industries develop and jobs specialize.

Second, at that time, incantations was widely liked and believed, People told

fortune with their dreams or peculiar changing of animals and plants and use charms and amulets. This is supported by many characters who use incantations in this story. Now, incantations like amulets, charms still have survived.

Third, in the era of the Kingdom of Ayuthia entering the novice-hood for 6-13 years old boys was thought be regarded as the pursuit of learning such as reading, writing and composing, which is regarded as one way of being government officials. This is supported by that only educated class could enter government service. Now this inclination was partly not changed but a Buddhist temples have turned into a school, and unscientific curriculums like inclination was gone since Rama the V.

Forth, the era of the Kingdom of Ayuthia was the society of Brahman culture, specially, the high society was. So ceremonies related to Royal family was Brahman's ceremony. And now that Brahman's was changed to Buddhist monk's ceremony or concepts of the two culture have been mixed.

Fifth, the ways of life of thai in Ayuthia which was mentioned in this story was not changed much now. Only unscientific and insanitary factors was modernized.

Sixth, thai women regardless of her social position could be sold with loans, bestowed as gift or reward or was married to a man disregarding woman's will. So it was natural to buy and sell women freely. Now it is almost rooted out, but it was thought that bad custom of past still survive little now because buying and selling people(especially woman) happen frequently.

**Key Word : Khunchang Khunphaen, thai way of life, sepha, thai folklore**